

- 학회명 : Australian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

- 장 소 : 호주, 케언즈

- 기 간 : 2004. 12. 6 - 12.10

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참가하게 되는 학회라 무리가 좀 따르는 듯 했으나,

결국 학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서둘러 준비를 했다.

호주라는 곳이 영어권이라 그리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지만,

오랫 만에 떠나보든 장거리 여행이라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.

그런데, 학회로 떠나는 첫날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케세이퍼시픽 항공기가 엔진결함으로

두 시간이나 늦게 출발하는 불안을 보였다. 결국, 경유지인 홍콩에 늦게 도착하여,

갈아탈 비행기를 놓치고 예정에도 없던 홍콩에서의 하루 밤을 보내게 되었다.

다음 날 오후, 홍콩에서 케언즈로 들어가는 직항편이 없어 뿔머른을 경유해서 가야했다.

호주로 가는 시간이 2박3일 걸린 셈이 되고 말았다.

학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갈아타야 할 경우, 충분한 TS 시간을 고려하는게 좋을 것이다.

학회가 열리는 장소는 호주의 휴양도시 케언즈에 있는 컨벤션 센터.

그리 크지는 않지만, 다양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었다. 다만,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

치명적인 결함(?)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.

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 국가에서 왔지만,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.

그 중에서, 중국, 한국 등 동양계가 좀 많았고, 호주 사람들도 많았다.

첫 날과 둘째 날은 워크샵과 튜토리얼로 진행되었고, 논문 발표는 셋째 날 시작되었다.

발표 Session은 네 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, 내가 속한 Session은 Agent 관련 Session이었다.

발표시간은 그런대로 딱 맞추어서 진행을 했으나 후반부에는 시간에 쫓겨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어 아쉬웠다. 그리고 평소에 하던 것과는 달리 약간 긴장해서 인지,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. 역시 발표준비는 스크립트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.

AI관련 학회여서 그런지 진화연산과 진화학습, Swam을 이용한 논문들도 있었다.

특히, Ang Yang이 발표한 전투체계를 모델링한 논문은 우리도 군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여 관심있게 지켜보고, 모델링 프레임워크에서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식별했는지 질문했다.

KeyNote Speech에서 Paul 교수님이 발표한 Knowledge-based System에 관한 논문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데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.

그 밖에도 분류와 클러스터링에 관한 발표들도 많았으며, 패턴인식과 관련된 주제도 상당수 있었다.

이번 호주학회 참가는 학회기간도 길었을 뿐 만 아니라 오가는 길도 힘들었기에  
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이었다. 학회기간이 오래 전부터 정해져 있어서 충분한 준비를  
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시일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준비가 되는 버릇도  
고쳐야할 여지가 있다. 발표준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세세한  
부분까지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겠다.

